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 거 복 지 로 드 밭		배포일시	2018. 3. 13.(화) 총 2매(본문 2매)	
담당 부서	첨단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박주환 • ☎ (044) 201-4225	
보도일시		2018년 3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3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항공정비사업(MRO) 전문기업 설립 위한 발기인 조합 결성 국내외 8개사 참여...인력채용 등 사업준비 본격 착수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정부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된 (주)한국항공우주산업(이하 "KAI")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MRO 전문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조합이 이달 14일 결성되었다고 밝혔다.

□ 그간 KAI 등 MRO 전문법인 설립참여 희망기업 간 투자지분 조율 등을 거쳐 한국항공공사, BNK 금융그룹, 미국 UNICAL사 등 8개사*가 투자기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. 이번 발기인 조합 설립식에 8개 투자기업의 CEO들이 참석하여 투자합의서에 서명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.

* 투자금액(지분율): 총 1,350억 원/ KAI(65.5%), 한국항공공사(19.9%), BNK, 美 Unical, 하이즈항공, 에이테크, 제주항공, 이스타항공

□ 이번 조합 설립을 계기로 항공 MRO 사업을 위한 인력채용, 특수장비·공구 구매 등 정비능력 구비를 위한 비용지출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, '18.12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준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.

* 향후 추진일정: 법인등기('18.7), 인력채용·정비설비완비 등 사업준비 완료('18.10), 국토부 항공정비업 등록 및 정비능력인증 획득('18.11), 사업개시('18.12)

-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앞으로 항공 MRO 전문법인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, 향후 소요되는 정비인력(‘25년까지 2,477명)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(단기과정, 경력정비사 양성 과정 등)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주환 사무관(☎ 044-201-42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